

形象醫學的 觀点에서 본 經絡理論의 臨床活用

강경화¹ · 송춘호² · 김형규³ · 이용태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¹생리학교실 · 한방바이오연구소, ²경혈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³세봉한의원

Clinical Applications of the Meridian Theory in the Point of Hyungsang Medicine

Kyung-Hwa Kang¹, Choon-Ho Song², Hyung-Gyu Kim³, Yong-Tae Lee¹

Dept. of ¹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²Meridian & Acupoint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eui-University ; ³Sebong Clinic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 & Methods : In the point of several medical books included "Internal Classic" and Hyungsang medicine, the writer studied about meridian theory and it's disorders, after adapting to acupuncture and herb medicine.

Results : 1. Dr. Jisan explained concretely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meridian appearances with using metaphor about phenomenons of nature and human living.

2. Shapes corresponding to meridian are considered as Yukkyunghyung formed by more or less of vigor and blood, and by tendency of up and down in eyes and nose, and also contained diseases of viscera and characters.

3. The colors connected with meridian are changed according to conditions, and meridian is seen through colors. And then colors is the properties of vital energy and symbol of spirit, that is expressed as aspect of essence, vigor, spirit and blood, as the original color of five viscera, as the colors of four seasons and as the colors of diseases. So the changes of feelings are appeared to meridian flow.

4. The method of examining pulse for meridian disorders is applied to Jisan diagram. Jisan diagram is devised from mutual communication of viscera and connection with inside and outside. It is conjugated widely in clinical examination to be distinguished into Dam-Bangkwang, into diseased part of viscera and into meridian. Also it is conjugated recuperation of diseases.

5. The meridian diseases are appeared all the distributed parts of meridian, especially skin, hair, eyebrow, and the ends of the extremities which are sensitive to stimulus. The causes are the disharmony between vital energy and blood and the discordance of six atmospheric variation. The symptoms are skinny aches, itching and eruption, etc.

Conclusions : The acupuncture of Hyungsang medicine which utilizes classification of shapes, examining pulse according to Jisan diagram and demonstration of symptoms, is very effective and required systematical study from now on.

Key words : meridian theory, Hyungsang medicine, Yukkyunghyung, acupuncture, Dam & Bangkwang

· 교신저자: 이용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0 동의대학교 한의
과대학 생리학교실, Tel. 051-850-8635, Fax. 051-853-4036,
E-mail: ytle@deu.ac.kr

· 접수 : 2004/02/15 · 수정 : 2004/03/05 · 채택 : 2004/03/10

I. 緒 論

한의학에서 經絡은 精氣神血, 臟腑, 身形과 더불어 人體를 形成하는 4대 要素 중의 하나다. 經絡은 手足에서는 十二經脈, 몸통에서는 奇經八脈으로 크게 나눈다. 수족에 있는 十二經脈 構成은 經穴, 經脈, 絡脈, 經筋, 經皮로 이루어져 이는 經絡體系가 點, 線, 面으로 그 範圍가 넓어지고¹⁾ 皮, 肉, 脈, 筋의 上下 階位까지 공간 영역이 확장되며 또한 臟腑와 手足의 內外 屬絡의 관계로 연계되어 결국 經絡체계는 人體의 모든 부분을 빈틈없는 그물망처럼 엮어 運行하면서 生命現象을 發顯하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胎內에서의 經絡發生²⁾도 먼저 五臟六腑가 먼저 生成되어 三焦가 八脈을 낳고, 八脈이 十二經을 낳으며, 十二經이 十二絡을 낳고, (중략) 孫絡이 365骨節을 낳으며, 骨節이 365大穴을 낳고, 大穴이 八萬四千의 毛竅를 낳으면, 耳目口鼻와 身形이 다 갖추어져 經絡組織이 臟腑와 모든 身形을 안팎으로 감싸고 있다. 그리고 經絡의 用語 속에는 手足, 三陰三陽, 臟腑, 經脈의 내용이 내포되어 이들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晝夜, 四時의 변화에 相應하고 氣血은 臟腑, 手足, 耳目口鼻 등 전신을 고리처럼 經絡을 循環한다. 이처럼 人體에 至大한 영향을 미치는 經絡에 대하여 「靈樞經別」에서 夫十二經脈者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 學之所始, 工之所止也³⁾라고 하여 疾病의 生理, 病理, 治療에 있어서 經絡의 公부가 시

작과 끝이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靈樞刺節眞邪論」에서는 六經調者, 謂之不病, 雖病, 謂之自己也⁴⁾라 하여 經絡機能이 調和로우면 비록 病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낫는다고 하여 治療에 있어서도 經絡機能의 원활함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經絡을 이용한 치료는 현재 臨床에서도 診斷, 藥物處方, 鍼灸 등에 널리 다양하게 活用되고 있지만, 그 存在가 無形이고 構造와 機能의 變化가 복잡하여 아직도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內經」과 「東醫寶鑑」의 醫學思想을 이어 받아 임상에 임하는 形象醫學에서도 經絡理論은 診斷, 鍼灸, 藥物 등 모든 치료 부문에 이용되고 있다. 즉, 「靈樞經脈」에서 人經不同, 絡脈異所別也⁵⁾라 한 데 근거하여 사람마다 서로 다른 形象이 經絡의 구조와 기능에 差別性이 생긴다 라는 觀點에서 六經形이라는 形象과 芝山圖表를 응용한 經絡診斷法이 朴⁶⁾에 의하여 創案되었다. 아울러 朴은 그의 著書들에서 經絡의 生理, 病理, 診斷, 治病의 概念을 구체화하기 위한 方편으로 자연과 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現象들을 經絡과 비유하여 이 이론을 설명하였다.

이에 著者는 本考를 통하여 經絡論과 經絡病에 대한 일반 한의학 이론을 정리하고, 朴의 저서들에 흩어져 言及된 여러 敍述을 정리하고, 經絡을 形, 色, 脈, 症의 측면에서 考察해보면서 이와 관련된 形象醫學的 立場에서 치료하여 有效했던 鍼과 藥物 처방의 임상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 1) 白根基, 200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芝山先生이 주창한 膽 膀胱 용어에 대한 研究, p275-292
- 2)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其次三焦生八脈 八脈生十二經 十二經生二十絡 二絡生一百八十絲絡 絲絡生一百八十纏絡 纏絡生三萬四千孫絡 孫絡生三百六十五骨節 骨節生三百六十大穴 大穴生八萬四千毛竅則 耳目口鼻百骸之身皆備矣<醫鑑>” p1659
- 3)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 1권, p503
- 4)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 3권, p441
- 5)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 1권, p498
- 6) 朴仁圭(1927-2000) 號는 芝山, 韓醫師, 形象醫學을 주창함

II. 本 論

1. 일반 한의학에서 본 經絡論

1) 經絡의 構造

經絡은 經脈과 絡脈의 總稱이다. 그중 經脈은 十二經脈, 十二經別,⁷⁾ 奇經八脈의⁸⁾ 3종류이고 絡脈은 十五絡脈⁹⁾, 孫絡, 浮絡, 血絡¹⁰⁾, 이다. 그리고 十二經脈의 走向에 따라 十二經筋¹¹⁾, 十二皮部¹²⁾가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經絡의 구조는 인체 表面의 線과 面의 영역뿐만 아니라 皮, 肉, 脈, 筋의 上下 階位로도 공간이 되고 거기에 각종 大小絡脈이 엮어져서 내로는 臟腑 외로는 四肢, 耳目口鼻, 關節, 筋肉, 皮膚까지 인체의 모든 부분을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인체의 모든 부분이 통일된 有機體로서 생명현상을 나타낸다.

2) 經絡과 氣血의 관계

經脈 중 經은 氣를 主해서 無形이고 脈은 血을 主해서 有形으로 血從氣¹³⁾, 한다. 經絡과 氣血의 關係를 組織과 運行의 측면에서 보면 經絡은 氣血을 담은 組織 즉 도로이며 氣血은 經絡運行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氣는 經絡의 機能과 運行에 주도적으로 作用하며 生命의 영위에 중요한 精氣神의 관계에서도 氣가 生命活動의 原動力으로 그 物質의 기초인 精과 氣가 발현된 현상인 神의 현상도 氣에 의존한다¹⁴⁾. 또한 氣는 內로는 飲食, 居處, 喜怒, 陰陽의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인 天地, 晝夜, 四時의 흐름으로 발생하는 風寒暑濕燥火에 의하여 부단히 적응하고 변화하여 經絡網을 통하여 生理 및 病理的 發顯象이 形色脈症으로 體表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許¹⁵⁾는 腎間動氣의 元氣가 十二經脈의 뿌리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血은 氣의 用事에 의지하여 氣와 함께 經絡의 循行路를 통하여 全身의 모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水穀의 精微

- 7) 金定濟 監修, 最新鍼灸學, 十二經別은 十二經脈 중의 同名經脈의 四肢주膝以上부위에서 分出하여 延殿散布되어 體腔內로 進入하여 各經이 屬絡되는 臟腑와 연계를 맺고 다시 體表로 淺出한다. p5
- 8) 金定濟 監修, 最新鍼灸學, 十二經脈 十二經別과는 달리 縱橫으로 貫通하여 十二經脈 중의 많은 經脈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이 八條의 奇經이 어떤 것은 인체의 正中에 分布되고 또 어떤 것은 좌우 양측에 분포되었는데, 위로는 두부안면에 도달하고 軀幹을 거쳐 아래로는 腿足에 까지 분포되고 있다. 또 어떤 것은 軀幹部를 橫斜로 圍繞한 것도 있다. 몇 개의 奇經은 體腔에 深入하여 內臟과 연계되었는데, 十二經脈과는 달리 장부와의 屬絡관계나 表裏배합관계는 없다. 어떤 것은 體표에만 분포되었다. 奇經八脈은 각종의 분포형식을 통하여 經脈전체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pp5-6
- 9) 上揭書, 十二絡脈에 任脈 督脈의 絡脈과 脾의 大絡을 加한 것이다. 十二絡脈은 十二經脈에서 분출하여 橫斜로 분포된 비교적 큰 絡脈이다. p6
- 10) 上揭書, 十五絡脈에서 분출된 橫斜로 散布된 脈을 일반적으로 絡脈이라 통칭한다. 絡脈에서 분출된 細小한 支脈을 孫絡이라 칭하고, 絡脈 가운데 體표에 浮現된 것을 浮絡이라 칭하며, 絡脈 가운데 피부에 노출된 세소한 혈관을 血絡이라 칭한다. p3
- 11) 上揭書, 十二經筋의 분포범위는 기본적으로 十二經脈의 분포부위와 일치된다. 經筋의 분포는 四肢末端, 手腕, 足踝, 주膝 및 軀幹과 頭頂部 등 매우 많은 부위에 걸쳐 있으며 일반적으로 內臟에는 不入하며 또 結集되는 특징이 있다. p6
- 12) 上揭書, 十二皮膚의 분포 범위는 기본적으로 十二經脈의 분포부위와 일치된다. 後世의 醫家들은 循經脈行 止所主則皮膚可知라고 인식하였다. p6
- 13) 宋點植 撰, 醫學輯要, p95
- 14) 鄭幸奎, 2001형상의학회논문집,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 氣에 관한 연구, p5
- 15)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腎間動氣也 此五藏六府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氣者人之根本也 p159

한 물질이다. 인체를 구성하고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는 氣血의 概念을 구조과 기능의 觀點으로 살펴보면¹⁶⁾, 구조적 개념에서 氣는 형틀을 意味하고 血은 그 형틀을 채워주는 물질이 되고 기능에서의 氣血의 의미는 음식과 攝生을 통하여 生成되고 변화하며 經絡으로 끊임없이 흐른다. 이에 관하여 예를 들면 人體의 모든 기관은 氣血의 바탕으로 이루어 졌고 이 형틀은 飲食과 呼吸으로 생성되는 氣血로 滋養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氣血多少의 편차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낳고 이에 따라 經絡도 이와 더불어 形成될 것이다.

3) 經絡의 晝夜 四時와 榮衛의 運行

① 晝夜와 榮衛

氣血이 經絡을 통하여 全身을 流注할 때 經絡속을 흐르는 經氣는 營氣, 衛氣, 宗氣, 原氣로 나눌 수 있다. 주야의 交替는 心身의 生理機能에 많은 영향을 주며 經絡의 흐름과 運行의 樣相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營氣와 衛氣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다. 營氣는 음식물의 精華가 변화하여 생긴 것으로 經脈을 순행함과 동시에 血液의 生成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므로 血氣라고도 한다. 衛氣는 水穀의 早氣로서 그 性情이 標疾滑利¹⁷⁾, 즉 그 擴散 滲透되는 능력이 매우 강하여 經脈내 뿐만 아니라 經脈 外側 즉 주변부로도 확산되므로 衛氣의 활동 面積이 매우 넓다는 의미를 표현한다¹⁸⁾. 한편 晝夜의 변화에 있어서 營氣와 衛氣의 運行상 차이에 대

하여 營氣가 도는 것은 手太陰에서 足厥陰에 이르러 全身을 一周하는데 晝夜로 한결같이 50周를 돌아가고 衛氣는 營氣와 달리 낮에는 다만 身體와 四肢 밖의 陽으로 運行하고 五臟六腑의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밤에는 오장육부 안에서 陰氣를 돌게 하며 身軀와 사지의 밖에는 나가지 않는다¹⁹⁾. 宗氣는 수곡의 精微와 吸入된 大氣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胸膈部에 모여 榮衛氣가 體內를 運行하는데 필요한 推動에너지이며, 原氣는 腎間動氣로 十二經脈의 根源이다. 原氣와 宗氣의 관계에서 宗氣는 上部에서 後天의 氣가 되고 原氣는 下部에 貯藏되어 先天之氣에 속한다²⁰⁾. 따라서 營氣와 衛氣는 宗氣, 原氣의 원천적 에너지의 滋養에 의존하여 그 기능을 發揮한다. 요약하면 네 가지 經氣 가운데 주야의 변화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衛氣이다. 衛氣는 陽氣의 開闔 작용으로 睡眠 현상을 초래하고²¹⁾, 혈관밖의 皮肉筋組織을 保護 護衛한다. 비유하면 衛氣의 작용은 마치 아침 저녁에 나팔꽃이 피고 지는 현상에 해당되고, 原氣는 뿌리, 宗氣는 잎사귀, 營氣는 줄기의 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② 四時의 運行

사람은 天地 2氣가 交流할 때 일어나는 四時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風寒暑濕燥火에 적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이 六氣는 三陰三陽의 用語로 표현되며 六氣는 本이 되고 三陰三陽은 標가 된다²²⁾. 구체적으로 보면 風은 厥陰, 寒은 太陰, 暑는 少陰, 濕은 太陰, 燥는 陽明, 火는 少陽으로 배합

16) 朴晶鉉, 2001형상의학회논문집,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形象醫學的 고찰 및 치료, p5

17) 李慶雨 譯, 譯解編主黃帝內經素問3, p89

18) 金定濟 監修, 最新鍼灸學, p9

19)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衛氣之行則不然 晝但周陽於身體四肢之外不入 五藏六府之內 夜但周陰於五藏六府之內 不出於身體四肢之外 p159

20) 金定濟 監修, 最新鍼灸學, pp10-11

2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陽氣行陰分二十五度於藏府之內則 耳目口鼻無陽氣運動 所以不能知覺而寐矣 p236

22)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三陰三陽 天之六氣標也 水火木金土地之五行本也 p867

되어 經絡의 내용에 들어 있다. 이 三陰三陽은 經絡의 機能이 작용하는데 많은 關聯을 맺고 있다. 그 內容은 첫째 月別 配屬과²³⁾, 그에 따른 四時의 氣候와 陰陽의 盛衰 關係를 나타낸다. 즉 正月太陽 寅也, 少陽 所謂 心脇痛者 言 少陽 戌也. 九月陽氣盡, 陽明者 午也, 五月 盛陽至陰也, 陽盛이 陰氣加之, 太陰者也, 十月 少陰者 申也, 十月 萬物陽氣 皆傷, 厥陰者 辰也, 三月 陽中之陰이라 하여 三陰三陽의 氣에는 각기 주장하는 月이 있음과 그의 음양이 偏盛 또는 偏衰함으로 말미암아 經絡 運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는 三陰三陽을 통하여 물질이나 에너지가 代謝될 때 出入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開闔樞인데²⁴⁾²⁵⁾²⁶⁾, 三陰三陽 중 太陽을 三陽으로 開, 陽明을 二陽으로 闔, 少陽을 一陽으로 樞, 太陰을 三陰으로 開, 少陰을 二陰으로 樞, 厥陰을 一陰으로 闔이라 하였고 이들의 역할은 開는 氣를 主出하여 敷暢 敷布하고 合은 氣를 主入하고 受納하며 樞는 氣를 轉輸 저장하고 出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그리고 三陰三陽經의 經絡作用에 대하여 李는 三陽經은 陽化氣 즉 異化作用이 主라면 三陰經은 陰成形 즉 同化作用이 主로 나타나고 三陽經은 氣血, 津液, 筋骨의 활동을 주관하며 三陰經은 三陽經의 活動에 필요한 精氣인 血氣, 精神, 營脈을 저장하는 기능

을 하여 陰陽의 衡平과 均衡을 조절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²⁸⁾. 또한 이 開闔樞 이론은 장부 相通論의 근거가 되어 運氣의 세기회동과 十二地支의 三合과 方合 원리와 더불어 芝山圖表의 구성 원리를 이루고 있다.

4) 經絡과 手足 三陰三陽 臟腑의 相互作用

經絡系統은 臟腑와 外形 특히 手足을 이어서 통일된 생명체로서의 機能을 수행하게 해주는 정보망 및 도로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臟腑에서 일어나는 모든 生理, 病理 현상은 經絡을 통하여 手足으로 나타나고 手足에서 外部 六氣의 변화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현상도 그대로 장부에 전달된다. 手足에 대하여 살펴보면 手足의 四肢는 人體를 지지하고 보호하면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장부에 공급하고 手足의 昇降浮沈의 운동과 호흡에 의한 배의 律動에 의하여 派生되는 波動으로 장부의 활동을 鼓舞시키므로 陽氣의 근원이고²⁹⁾, 成體의 根本³⁰⁾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체가 사시의 변화에 相應하면서 公轉할 때 이에 적응하는 인체부위가 수족에 해당되는데 수족은 四時陰陽의 消長 盛衰 進退에 따라 나타나는 六氣 변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내외의 六氣를 조절한다. 한편, 經絡의 流注 經路인 肢脛구조는 管이고³¹⁾, 그것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였

23)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3, 「素問脈解」에서 월별 六氣配屬과 陰陽消長관계 부분을 요약한 것임. p225

24)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1, 名曰陰中之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三經者, 不得相失也, 搏而勿浮, p239

25)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3, 陽明之陽, 名曰害蜚...少陽之陽, 名曰樞持...太陽之陽, 名曰闔樞...少陰之陰, 名曰樞儒...心主之陰, 名曰害肩...太陰之陰, 名曰關蟄 pp347-348

26) 李慶雨,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1, 不知根結, 五藏六府, 折關敗樞, ...,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p227, 231, 236

27) 이용태, 200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이해, p617-623

28) 上揭書, p617-623

29)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四肢者 諸陽之本也 陽盛則 四肢實 又曰 諸陽受氣於四肢也 p767

30)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p70

3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肢脛者 人之管以趨上者也 p767

는데 관의 원형구조는 氣血의 運行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이로 因하여 氣血의 흐름도 더욱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장부와 經絡 관계, 예를 들면 폐와 手太陰肺經의 경우는 肺는 그릇 곧 조직이고 肺經은 肺의 조직을 활동하게 하는 운행기능이니 부연하면 五臟은 형체만 가지고 있고 그에 해당되는 無形의 經絡이 有形의 장부를 위하여 제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³²⁾. 또한 장부 經絡 수족의 경로를 따라 유주하는 經絡의 방향은³³⁾ 手三陰經은 從胸走手, 足三陰經은 從足走腹, 手三陽經은 從手走頭, 足三陽經은 從頭走足으로 흐르면서 手足, 身軀, 頭, 前後, 表裏를 빈틈없이 그물망처럼 엮어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昇降浮沈이라는 手足運動이 발현된다.

5) 經絡의 異常으로 인한 病變

① 概要

經絡은 人體의 表裏 內外를 연계시키는 통로이므로 經絡系統에 病變이 發生하면 臟腑로 파급되며 臟腑의 病變도 經絡에 나타난다. 經絡病은 대개 循環路 자체의 通 不通, 經絡 중의 氣血盛衰 등을 들 수 있고, 疾患의 소재가 經絡 臟腑 어딘가를 막론하고 그 증후는 언제나 經絡이 順行하고 屬絡하는 특정부위로 반영되어 나오며 따라서 經絡 臟腑의 病變은 특정한 증후가 있다. 그러므로 症狀의 성상 그 부위를 주의깊게 관찰하면 病이 어느 經絡에 있는지 변별 할 수 있다.³⁴⁾

② 是動病과 所生病

是動病, 所生病은 經絡과 그에 해당되는 臟腑

에서 일어나는 病變을 말한 것인데, 대개 是動病은 本經의 經氣의 이상 변동으로 이에 관련된 臟腑에 病症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經脈에서 臟腑로 전해준 것이며 본 臟腑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所生病은 臟腑本神의 病症이 所屬經絡까지 발전되어 經脈이 順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病症이며 經脈에서 먼저 생긴 병이 아니다. 是動病과 所生病의 용어와 개념은 「靈樞經脈」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그 후 여러 역대 醫家들에 의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는데 「難經」에서는 是動病은 氣로 所生病을 血로 보아 氣가 먼저 病이 들고 뒤에 血로 病이 되므로 是動病은 先, 所生病을 後로 보는 선후관계를 주장하였고 張은 是動病者 病見于外 所生病者 見于內라 하여 내외의 병증으로 보았고, 최근의 견해로는 急性 元發성을 是動病, 慢性 續發성을 所生病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통합된 이론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증상의 발현도 서로 혼재되어 오늘날 臨床에서도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³⁵⁾

③ 經絡 病變의 病理 및 주요 증상

經絡의 病變은 經絡運行에 영향을 주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의 外的條件과 飲食, 七情 등 內的條件에 변조가 초래되면 內外表裏 즉 臟腑와 身形의 전신 經絡 흐름상, 出入昇降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장부에 있어서 升降의 예를 들면 肺의 宣發肅降, 脾胃의 升清降濁, 肝의 升發疏泄, 心火腎水の 水升火降, 大腸의 傳道, 膀胱의 疏泄 등이고³⁶⁾, 外的 六氣는 먼저 皮膚에 客入하여 孫脈에 전입하고 孫脈이 차면 絡脈에 전입

32) 宋點植 撰, 醫學輯要, 太陽의 내부의 일은 전부 足太陽이 행하고, 太陽의 외부의 일은 전부 手太陽이 행해서, 太陽의 책임을 완수하고 手足太陽은 사실상 일체이므로 장부의 역군이 된다. p108

33)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2, p361

34) 朴贊國 編譯, 病因病機學, p360

35) 上揭書, pp361-362

36) 上揭書, p120

하며 絡脈이 차면 大經脈에 수송 되어져 血氣가 邪와 더불어 아울러 分, 腠의 사이에 客居하면 거기서 다시 六腑, 五臟까지 출입하게 된다³⁷⁾. 이처럼 臟腑, 六淫에서 발생하는 疾病은 經絡을 통한 出入升降에 의하여 형성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營衛氣血의 도로인 經絡 자신도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 증상으로는 痛痺, 瘀滯, 逆順逆亂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痛, 痺의 原因과 病理는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 切循其經絡之凝滯, 結而不通者此於身皆爲痛痺³⁸⁾라 하였고, 그 외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痛, 痺의 原因은 氣血의 偏虛 偏實, 不通 등에 기인하는데 氣血의 偏虛는 經絡의 氣血不足을 말함이며 臟腑氣血이 不足하면 經絡에 영향을 미치거나 阻滯로 인해 氣血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된 經絡의 皮膚나 筋肉을 濡潤 溫營하지 못하여 痛, 痺, 癱木 등이 나타나고 偏實의 경우는 氣血의 상대적인 壅盛을 가리키는데 항상 기능의 太過와 生飢의 부조화로 病을 일으킨다. 瘀滯는 經絡內 氣血의 흐름이 영기어서 머물러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瘀, 滯의 原因은 外感六淫과 七情 七氣의 鬱滯, 外傷이나 手術 등에 의하여 發病되어 그 해당 經絡과 臟腑에 연관되는 外竅나 기타 부위에 나타난다. 그 증상은 腫, 寒, 熱, 痿, 癱, 瘤, 등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經絡 운행의 逆順은 經脈에서 氣血이 왕래하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그 내용은 十二經脈의 運行을 한 부위에서 관찰할 때 방향이

다른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즉 예를 들어 손에서 보면 手三陰經은 臟腑에서 손으로 운행되는데, 手三陽經 방향은 손에서 머리로 운행되어 상반된 방향이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順逆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의 逆, 順은 본래 流注 방향으로 가는 것을 順, 반대 방향으로 流注하는 것을 逆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手三陰經은 臟에서 손으로 가는 것이 順인데 손에서 臟으로 가는 것이 逆이라 한 것이다³⁹⁾. 한편, 「靈樞根結」⁴⁰⁾에서는 생리에 적합한 것을 順으로 부적합한 것을 逆으로 파악하여 진단 치료에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逆亂은 經絡의 흐름이 逆順 運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厥과 같은 病變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關이란 逆行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素問厥論」에서 願聞六經脈之厥狀病能也, 岐伯曰, 巨陽之厥, 則腫首頭腫, 足不能行, 發爲胸仆⁴¹⁾라 하여 足太陽의 脈이 內眼角에서 起始하여 이마로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교했다가 腦로 入絡하는데 그 氣가 上逆하면 腫首, 頭重, 胸仆하는 症이 일어나고 下行하는 脈은 오금에서 合했다가 腦(장판지)내를 지나가는데 위로 逆行하면 아래가 허해지므로 걸을 수 없어 쓰러지는 것이다.

2. 形象醫學의 經絡論과 經絡病의 治療

芝山の 經絡論과 이에 대한 병증의 서술 자료는 모두 「芝山先生臨床學特講(1-7 권)」의 내용을 概要, 三陰三陽, 臟腑, 身形, 皮膚로 분류하

37)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風雨之傷人也 先客於皮膚 傳入於孫脉 孫脉滿則 傳入於絡脉 絡脉滿則 輸于大經脉 血氣與邪并客於分腠之間 其脉堅大 故 實 實者 外堅充滿 不可按之 按之則痛 p889

38)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3, p194

39) 朴贊國編譯, 病因病機學, 經絡氣血失調編, 經絡氣血運行的 逆亂, 經絡氣血의 瘀滯, 經絡氣血의 衰竭을 요약한 내용임. pp362-365

40)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1, 逆順五體者, ..., 黃帝曰 形氣之逆順奈何? ..., 有餘者寫之, 不足者補之, 此之謂也. pp248-249

41) 李慶雨 翻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3, p132

陽明經은 燥金하고 몸의 앞을 행하며 少陽經은 相火하고 몸의 측면을 행한다. 太陰經은 濕土하고 大腹에 퍼져 있으며 少陽經은 君火하고 小腹에 퍼져 있으며 厥陰經은 風木하고 軟脇에 퍼져 있다.⁵⁴⁾

③ 經絡과 臟腑

- 肺는 陰이므로 陽에서 동하고 大腸은 陽이므로 陰에서 動하는 법이다. 그런데 상하로 이를 조절하는 것이 十二經脈이다.⁵⁵⁾
- 大腸이 불 때 十二經脈을 관장하는 법인데 肺 - 大腸의 표리관계가 運化를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運化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十二經脈이며 표리관계를 中和시켜 주는 것이 바로 十二經脈이다. 낮에는 코로 숨을 쉬고 밤에는 大腸으로 숨을 쉰다. 밤은 陰이니 肺는 陰이니까 上에 居하여 陽氣를 받아 들이고 大腸은 陽이니까 陰에 居하여 陽氣를 빨아 들인다. 낮에 서있는 것은 汗문을 막기 위한 것이고 밤에 구부리고 있는 것은 汗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다.⁵⁶⁾
- 手足의 四肢는 脾胃에서 氣를 받게 되어 있다. 十二經脈을 좋게 하는 것은 精에 氣가 있어야 되니까 脾를 運行시켜 주면 된다.⁵⁷⁾
- 胞絡이라는 것은 陰血之源이라고 한다. 十二經脈을 돌려 주려면 물이 없으면 안된다.

形을 길러 주는 것이 血이다. 胞絡은 子宮과 같이 본다. 그러니까 여자는 十二經脈의 집이다.⁵⁸⁾

- 心臟이나 胃腸이 나쁘다는 것은 十二經脈이 나쁘다는 얘기다. 心臟 위장이 나쁘면 十二經脈에 대한 약을 써주는데 手足麻木에 대한 약을 쓴다.⁵⁹⁾
- 十二經脈이 나쁘다는 것은 간이 나쁘다는 뜻이다.⁶⁰⁾
- 腎은 쌓아서 올라가는 곳인데 足少陰腎經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足少陰腎經이 生氣의 根源이기 때문이다.⁶¹⁾
이상을 요약하면 晝夜經絡運動은 肺, 大腸이 주관하고 心, 脾, 胃는 十二經絡에 氣血 精氣를 공급하며 腎은 腎間動氣로 生氣의 根源이고 胞絡은 여자의 경우 十二經脈이 모여드는 陰血의 源泉이다.

④ 經絡과 身形

- 얼굴은 三陽經의 집체이므로 風寒濕을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고 三陽經은 陽明經이 총사이므로 추위에도 얼굴은 어는 법이 없다.⁶²⁾
- 耳目口鼻는 升降浮沈으로 본다. 陽明은 浮에 해당하며 눈이 튀어나오고, 厥陰은 沈에 해당하며 눈이 들어간다.⁶³⁾

5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p69-70

5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권, p 129

5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320

5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10

5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215

5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236

6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248

6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250

6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360

6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145

였다.

1) 芝山の 經絡論

① 經絡의 概要

- 經絡이란 氣가 升降하는 도로이며 水火의 升降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天에 7개가 있고 地에 2개가 있다.⁴²⁾
- 氣를 주관하는 것이 十二經絡이요 血을 주관하는 것이 奇經八脈이다. 둘은 서로 표리 관계가 된다.⁴³⁾
- 經絡은 河川이다. 河川 주변에 풀이라는 털이 자란다.⁴⁴⁾
- 十二經脈은 風寒濕을 배제해 주는 기관이다. 十二經脈이 나쁘면 24절후에 적응이 안 된다.⁴⁵⁾
- 十二經脈은 배에서는 배꼽에 붙어 있고 耳目口鼻에서는 눈에 붙어 있다.⁴⁶⁾
- 얼굴은 黑白으로 보는데 이것은 十二經脈을 상징한다. 얼굴과 배는 三陽經과 三陰經이라고 하는 표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⁴⁷⁾
- 手太陰肺經하면 이것은 太陰으로 볼 것이냐 또는 肺로 볼 것이냐 手太陰肺經으로 볼 것이냐 氣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三用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三用이란 陰陽, 氣血, 十二經脈을 말한다. 그래서 九天 이론이 형성된다.⁴⁸⁾

- 行氣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 있고 인체의 十二經脈을 전부 돌린다는 뜻이다.⁴⁹⁾

② 經絡과 三陰三陽

- 사람의 근본은 음식이다. 물이라는 것은 十二經絡을 운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물을 마시면 四時에 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밥을 먹으면 사지가 똑같이 權衡을 이루도록 해준다.⁵⁰⁾
- 물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十二經脈이 형성된다... 물이 四時에 따라 변하는데 이 변화된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몸에 十二經脈이 있기 때문이다.⁵¹⁾
- 經絡은 三陰三陽이 나빠서 오는 病이기 때문에 病의 발호는 手五指와 足五趾로 나타난다.⁵²⁾
- 三陰經은 빨아들이고 三陽經은 흠어 버린다.⁵³⁾
- 三陰三陽은 사물을 陰陽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氣血을 表裏로 보고 이야기한 것이다. 太陽經은 寒水하고 몸의 뒤를 行하며

4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23

4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p23

4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74

4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201, p226

4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85

4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16

4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99

4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289

5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00

5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54

5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Ⅵ, p385

5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64

(눈, 입)

- 입이란 十二經絡의 운동으로 본다. 여자가 입술이 큰 것은 배가 좋지 않은 것이며. 胞는 十二經絡의 바다이다. 또 입술을 보고 十二經脈이 나쁜 것을 알 수 있다.⁶⁴⁾
- 입술이 붉은 것은 陰虛內熱로 津液이 마르는 것이고, 精氣固澁이 안된 것이고 十二經脈이 나쁘다.⁶⁵⁾
- 여자는 十二經脈 위주로 되어 있어서 눈입이 발달되어야 한다.⁶⁶⁾
- 十二經脈은 배에서는 배꼽에 붙어 있고, 얼굴에서는 눈에 붙어 있다.⁶⁷⁾

(모발, 눈썹)

- 모발이 굵다는 것은 十二經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흰머리가 많다는 것은 先天之氣가 나빠서 온 병이라는 것을 뜻한다.⁶⁸⁾
- 모발자체는 十二經脈에 속해 있으니까 血氣가 충만되어 있는데 血氣는 氣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런데 곱슬머리는 屈伸이란 개념 중에서 伸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다. 뽕는다는 것은 水로 보는데 말의 털갈이 곧아야지 털이 곱슬하면 뽕는 힘이 약하다 곱슬머리는 氣鬱症이 많다.⁶⁹⁾
- 눈썹이 美麗하다는 것은 氣血의 多少를 이

야기하는 것이며 十二經脈이 나쁘다는 의미다. 이럴 때는 三陰三陽을 가지고 조절한다.⁷⁰⁾

- 눈썹이 진한 것으로 보아 혈기가 盛하여 十二經脈이 좋지않은 것을 알 수 있다.⁷¹⁾
- 눈썹이 진한 것은 十二經絡이 발달된 사람이며 그로 보아서 風寒濕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이다.⁷²⁾
- 눈꼬리와 코끝이 올라간 것만이 太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썹이 짙은 것도 태양으로 본다.⁷³⁾

(손발, 손가락, 손톱)

- 十二經脈은 手足으로 하여금 유지하게 하고 運行하게 하고 보전하게 하는 것이다. 十二經脈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파로 다리따로 움직이고 잘 걸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⁷⁴⁾
- 손발은 十二經脈이 통하는 곳이고 三陰三陽經이 交섭을 이루는 곳이다.⁷⁵⁾
- 손발이라는 것은 內에서 發하는 風寒濕을 배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外에서 들어오는 風寒濕을 흠어뜨리는 역할을 한다.⁷⁶⁾
- 손가락 중 어느 것이 아프냐를 물어서 經絡

6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41, p244

6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47

6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48

6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85

6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69

6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247

7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264

7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86

7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316

7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47

7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372

7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Ⅵ, p385

7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1

을 따져 보아야 한다. 皮肉脈筋骨의 어디가 아프냐도 따져야 한다.⁷⁷⁾

- 손가락이 긴 여자가 왔다면 十二經脈 위주가 되므로 血氣 위주로 보아 益胃升陽湯으로 陽氣를 升하게 해주고 손가락이 짧은 남자가 왔다면 奇經八脈 위주로 보고 八物湯으로 氣血을 肅군다.⁷⁸⁾
- 손톱이 마르는 것은 十二經脈이 나쁜 것이다. 손톱은 나무의 싹이다. 싹이 트지 않은 것이다.⁷⁹⁾
- 玉莖은 宗筋인데 十二經筋의 集體다. 이것이 여자의 十二經絡의 집에 들어가면 十二經이 滑走하여 수족으로 나타난다.⁸⁰⁾
- 陰部와 膻 주위가 붓고 터지면서 가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十二經脈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다. 前陰은 十二經筋이 다 모이는 宗筋이고 太陰과 陽明이 합하는 곳이다.⁸¹⁾
- 배에는 先天之氣가 있어서 天氣가 되며 十二經絡의 바다가 되고 가슴에는 後天之氣가 있는데 이것은 形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⁸²⁾

이상을 요약하면 모발, 손톱, 눈썹은 인체의 가장 말단에 있어서 經絡의 代謝현상이 매우 잘 드러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氣血의 多少와 血氣의 작용을 말한 것이다. 즉 눈썹이 너무 진하면 十二經絡의 작용이 과도하여 항상 血氣가 부

족되기 쉽고 風寒濕에도 弱하게 된다. 또한 손톱이 마르는 것은 나무의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十二經脈이 氣血을 적셔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눈은 十二經脈이 모두 매여져 있고 입과 입술은 十二經絡이 운행되는 모습의 표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十二經脈은 수족운동의 균형을 잡아 주고 十二經脈의 交合이 일어나는 곳이며 風寒濕을 배제한다 이를 남녀로 보면 손가락이 짧으면 奇經八脈 위주로 남자로 보고 손가락이 길면 十二經脈 위주로 여자형이라 하였다.

⑤ 經絡과 皮膚

- 經絡은 皮위에 있으며 그물같이 모발로 엮여져 있다.⁸³⁾
- 十二經脈은 皮膚를 滋養하는 곳이다.⁸⁴⁾
- 皮膚란 十二經絡의 창고이다. 皮膚가 나쁜 것은 十二經絡이 四時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코를 뚫어 四時에 상응하게 해야 한다.⁸⁵⁾
- 인체는 天上陽 地下陰으로써 교류 변화를 해야 하는데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皮膚呼吸이다. 皮膚呼吸은 精血을 肅구기 위한 것인데 皮膚呼吸이 안되어 까칠까칠한 경우에는 六味地黃元 腎氣丸을 쓴다. 皮膚呼吸은 肝腎을 肅우고 心肺를 肅우어 上下를 좋게 한다.⁸⁶⁾

7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79

7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9

7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p276

8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214

8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188

8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40

8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74

8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125

8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93

8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320

- 피부호흡은 皮肉脈筋骨을 滋養하고 風寒暑濕燥火를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⁸⁷⁾
- 皮膚가 거친 것은 十二經脈이 좋지 않은 것이므로 남자는 腎氣丸 여자는 四物湯合生脈散을 쓴다.⁸⁸⁾
- 울동운동과 피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울동이다. 울동운동으로 복부에서 皮毛까지 파장이 퍼져 나간다.⁸⁹⁾
- 여기서 皮毛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자. 아까 經絡이 뭐라고 했지? 皮의 部라 했습니다. 皮膚위에는 뭐가 나있지? 털이 나 있습니다. 天에 있어서 흠어지는 것을 毛라고 해, 또 精이 氣에 의하여 흠어지는 것이 毛야. 말하자면 毛는 氣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야. 外氣가 皮膚에 와 닿으면 風化作用에 의해서 흠어지는데 흠어지지 않기 위해서 毛가 생긴 거야. 나무가 땅의 흠을 흠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아. 산에 나무가 있어서 산사태가 나지 않는 것처럼 毛가 皮膚의 풍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皮膚病 즉 隱疹, 斑疹 등은 전부 經絡病이야. 이것은 皮毛가 損傷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안나야. 심해지면 失明이 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⁹⁰⁾
- 인간도 옷을 입지 않으면 털이 발달한다. 중요한 것은 털이 몸을 보호해 준다. 예를 들면 水升火降이 안되면 經絡의 통로가 막히

고 털이 빠진다.⁹¹⁾

- 검버섯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체의 구멍이 막혀서 老化된 것이다. 집에 물이 새는 곳에 이끼가 끼는 것과 같다. 經絡의 쇠퇴함을 말한다.⁹²⁾
- 여기 <皮門>에 나오는 處方들은 다 經絡을 운행시켜 주는 약이라고 보면 된다.⁹³⁾

요약하면 皮膚는 腠理, 玄府, 毛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經絡이 그물망처럼 毛와 함께 엮여져 있다. 皮膚는 十二經絡의 창고라 하였고 十二經絡이 모든 皮膚계통을 滋養하고 皮膚呼吸을 통하여 인체의 상하를 교류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전신의 精血이 돌워지고 風寒濕도 배제한다. 皮膚는 이처럼 經絡과 밀접한 작용을 하므로 각종 피부병은 모두 經絡病으로 보았고 <皮門>의 處方들도 經絡을 운행시키는 약이라고 하였다.

2) 經絡의 形, 色, 脈, 症

이상의 『芝山先生臨床學特講(1- 7 권)』에 수록된 經絡論과 이에 대한 병증에 관한 서술을 요약하면서 形, 色, 脈, 症의 經絡的 의미를 살펴본다.

① 經絡과 形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氣生形⁹⁴⁾이라 하였는데 이 말을 經絡의 측면에서 보면 飲食과 呼吸에 의하여 생성된 氣血은 經絡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되어 經絡의 흐름을 따라 전신을 운행하여

8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250

8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319

8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p231

9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11

9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23

9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p282

9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98

94) 李慶雨 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1,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p159

몸의 形象을 이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形象을 구성하는 經絡의 양상은 「靈樞經脈」에서 人經不同 絡脈異所別也⁹⁵⁾라 하여 사람마다 서로 다른 經絡의 발달 상태나 升降浮沈의 운동성 氣血多少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經絡 체질을 형성하여 그 形象이 신체의외부에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눈과 코에 그 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朴은 이것을 토대로 독창적인 六經形을 창안하였다고 본다.

六經形은 인체가 六氣로 인해 癩疾化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⁹⁶⁾ 그 내용에는 六經形의 氣血多少, 風寒暑濕燥火의 虛邪가 六經形 經絡을 침입하여 癩疾化된다는 發病 經路, 六經形과 연관되는 臟腑의 好發 병변 그리고 性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연하면 形象醫學에서 눈, 코는 남녀로 보면 남자는 天垂象이라 하여 어깨가 넓고 골반이 좁으며 코는 길고 내려 먹은 형상이고, 여자는 이와 반대로 地積象인데⁹⁷⁾ 골반이 넓고 어깨가 좁으며 유방이 크고 코가 들린 형상이다. 장부의 측면에서는 코는 肺와 腎의 관계에서 葉이고 눈은 心과 肝의 관계에서 葉에 해당되어 눈코는 葉에 속하므로⁹⁸⁾ 耳目口鼻에서 臟腑의 氣勢를 그대로 드러낸다. 精氣神血에서 코는 精氣의 通路로써⁹⁹⁾ 氣의 用事하는 방향이 표시되는 氣의 신호등이고, 눈은 精氣의 메모리이며¹⁰⁰⁾ 神의 깃발이라 하여¹⁰¹⁾ 정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리고 走鳥魚甲類에서 走類는 코와 사지

가 쪽 빠져 길어 보이고, 鳥類는 눈이 크고 발달되어 몸집이 작은 편으로 走類나 甲類에 비해 多動하며 잘 변한다. 따라서 눈코의 변화상인 升降의 기세 가운데 눈의 升降은 神의 깃발이므로 神(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즉 눈이 올라간 형은 감정의 변화가 다채롭고 發揚性이며 내렸으면 감정이 收斂性이고 변화의 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코의 기세는 精氣의 통로이며 氣의 신호등으로 코가 올라간 형은 地積의 의미로 보면 여자의 기본형이고, 오른다는 뜻으로 陽으로 표시하였고, 내려온 형은 天垂로 남자의 基本形으로 내린다는 의미에서 陰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太陽形은 눈↑코↑, 陽+陽, 少陽形은 눈↓코↑, 陰+陽(여자의 기본형, 임상에서 관찰시 매우 높은 비율임) 太陰形은 눈↓코↓, 陰+陰, 少陰形은 눈↑코↓ 陽+陰(남자의 기본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陽明形은 氣血이 함께 盛하므로 全身이 부풀어 오른 형이고 厥陰形은 陽明形과 逆으로 全身이 陷沒形이다¹⁰²⁾. 이에 따라 經絡病變은 外感病일 경우는 그 발달된 六經形으로 해당되는 經絡을 따라 병이 들어오고 臟腑疾患도 발달된 經絡을 따라 經絡을 통하여 體表로 나타난다. 한편, 六經形의 氣血多少 관계는 「內經」說을 적용하였는데¹⁰³⁾, 六經形의 構造論과 氣血多少의 연관성은 보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六經形이 임상에서 활용되어지는 예를 살펴보면 皮膚發汗의 경우에 太陽形은 少氣하므로 피부조직이 치밀하지 못하

95) 李慶雨魏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1, p498

96) 조성태, 1999형상의학회논문집, p32

9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pp41-42

98) 許浚著, 對譯東醫寶鑑, 肝有二布葉七小葉. 肺之形似人肩 二布葉數小葉 中有二十四孔. p304, p322

9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291

10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p260, p360

101) 許浚著, 對譯東醫寶鑑, 色者 神之旗 臟者 神之舍 p880

102) 백근기, 1999형상의학회논문집, p35

103) 李慶雨魏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2, p201

Table 1. 눈, 코의 形象的 分類

분류	눈	코
天垂, 地積	여자 : 눈, 입위주 남자 : 코, 귀위주	남자 ↓, 여자 ↑
臟腑	肝의 葉	肺의 葉
精氣神血	精氣의 메모리 神의 깃발	精氣의 통로 氣의 신호등
走鳥魚甲	鳥類는 눈이 크고 발달	走類는 코가 길게 빠짐

여 땀을 쉽게 흘리고 少陽形은 多氣하므로 피부 조직이 치밀하여 發汗이 덜하고 陽明形은 多氣多血로 皮肉이 치밀하고 두터우므로 發熱과 發汗의 정도가 강하여 發熱 증상이 나타난다.

② 經絡과 色

疾病을 診察하는데 經絡을 통하여 나타나는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色과 脈에 대하여는 「內經」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도 五臟의 氣는 色으로 나타나고 五色은 氣의 榮華요 神의 깃발이라고 하였다.¹⁰⁴⁾ 색이 체표에 생성되는 과정은 「靈樞經脈」에서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經脈也. ……; 經脈者常不可見也, 其虛實也, 以氣口知之, 脈之見也者 皆絡脈也라 하여¹⁰⁵⁾ 우리가 肉眼으로 살피보는 色은 經脈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絡脈과 그 분지인 孫絡, 浮絡에서 나타나고 皮下 肌肉으로 흐르는 經脈에서는 단지 氣口脈을 통하여 病의 虛實을 따진다고 하였다. 色의 종류는 不變色 變化色 病色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不變色은¹⁰⁶⁾ 心赤, 肝青, 脾黃, 肺白, 腎黑으로 五臟의 階位的 차이에 의한

Table 2. 六經形

六經形	太陽形	少陽形	陽明形	太陰形	少陰形	厥陰形
눈, 코	코 ↑, 陽, 코 ↓, 陰이 기준 (陽+陽)	코 ↑, 陽, 코 ↓, 陰 (陽+陰)	안면 돌출형, 눈두덩, 입술 두툼	코 ↓, 陰 (陰+陰)	코 ↓, 陰, 코 ↑, 陽 (陰+陽)	안면 함몰형, 눈두덩이 함몰
氣 勢	升	集(여자 기본형)	突出	降	散(남자 기본형)	陷沒
발달 부위	後面	側面	前面	大腹	臍腹	少腹
發達 經絡	太陽經	少陽經	陽明經	太陰經	少陰經	厥陰經
氣血 多少	少氣 多血	多氣 少血	多氣 多血	多氣 少血	多氣 少血	少氣 多血

본 바탕색이 드러난 것이고 變化色은¹⁰⁷⁾ 晝夜, 四時, 內外의 條件에 따라 변하는 色인데 寒多하면 靑黑, 熱多하면 黃赤 등으로 변하는 색이다. 예를 들면 四時色의 경우 겨울은 얼굴색이 거무스레하게 변하는데 이는 겨울에 상응하는 腎의 色이 발현된 것이고 이때는 皮膚의 開合作用을 저하시켜 腠理가 緻密해지고 皮下에 鬱血된 피가 외부의 寒氣와 접촉하여 검게 변하고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 햇빛을 흡수한다. 여름에는 반대로 熱氣를 發散시키기 心臟 기능이 활발히 작동되어 주리가 열리고 그 熱에 의하여 얼굴이 붉어진다. 그리고 흰색 계통의 옷을 입어 햇빛을 반사시킨다. 病色이 나타나는 경우는 病變의 變化에 맞추어 氣의 運行이 조절되지 못하거나 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臟腑機能이 극도로 저하되거나, 逆으로 疾病의 경과가 급성적으로 진전될 경우나 病의 상태가 不治症이나 死證일 때 臟腑의 소속 經絡을 통하여 그 기능이 發顯되는 부위에 色이나 脈의 변화가 드러난다. 이에 대한 「東醫寶鑑」의

10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五色으로서 輕重을 分辨하는데 睛明의 五色은 氣의 榮華이니, …, 五臟의 氣가 色으로 나타나는데(생략). p291

105) 李慶雨譯, 譯解編注黃帝內經靈樞1, p473

106) 大韓形象醫學會編, 芝山形象醫案, p29

10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291

Table 3. 芝山圖表

男(左)		女(右)	
118	(膽) 肺 [天] 108 (膽) 心	膀胱 (膀) 107 97 [人] 膽 (膽)	
98	(膽) 心包	胃 (膀)	87
[人] 88			77 [地]
78	(膀) 脾	小腸 (膽)	67
58	(膽) 肝 [地] 68 (膀) 腎	大腸 (膀) 57 [天] 三焦 (膽) 47	
	順		逆

예를 들어 보면¹⁰⁸⁾ 코에서 나타나는 색의 경우 鼻頭가 푸르면 병이 있고 검으면 勞한 症이요 붉으면 風이요 누르면 便이 어렵고 鮮明하면 留飲이 있는 증이다. 鼻頭가 微白한 것은 亡血이 된 症이요 붉은 것은 血이 熱한 症이니 酒客에 많이 있다고 하였고 手掌에서는 魚際 위의 白肉에 淸血脈이 있는 것은 胃中이 寒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朴은 十二經脈의 根인 배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키면 카멜레온처럼 색이 나오고 들어가게 된다.¹⁰⁹⁾ 十二經脈은 색으로 보게 되어 있다.¹¹⁰⁾ 하면서 여건에 따라 변화할 때 변화하는 것을 색이라 하였으며¹¹¹⁾ 또한 五味를 取하므로써 색이 나타나고 水穀의 통로는 精氣의 통로가 되며 神氣의 표상이 색으로 나타나는데 코와 皮膚 등에 주

로 많이 드러난다고 하였다.¹¹²⁾ 또한 七情의 변화도 색으로 드러나는데 성질을 부리면 배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켜서 體內의 寒熱 상태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한다고 하였다.¹¹³⁾

③ 經絡과 脈

脈을 진찰하고 안다는 것은 寸口를 診하고 虛實을 보아서 그 병이 어느 장부에 있다는 것을 아는 법이다.¹¹⁴⁾ 脈은 營衛를 主宰하면서 잠깐이라도 정상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다.¹¹⁵⁾ 脈은 四時의 계절에 상응하여 五臟이 반응하여 나타나는 春弦, 夏浮, 長夏緩, 秋毛, 冬石의 四時 五臟脈과 病의 盛衰에 따라 脈動 및 脈象으로 구분되는 28 脈이¹¹⁶⁾ 있다. 朴은 形象의 立場에서 脈이 있기에 그 形이 있다고¹¹⁷⁾ 하면서 脈이란 先天의 유일한 氣로 血氣보다 앞서며 營衛를 主宰하여 人身이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氣血이 經絡을 따라 全身에 運行될 수 있도록 하며 體內의 장부상태를 體外의 寸關尺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脈의 의미를 말하였다.¹¹⁸⁾ 그 形에 그 脈이 있다는 뜻은 男女老少, 肥瘦長短의 形象에 따라 脈의 양상이 다르고 氣血의 운동에 따라서도 脈이 다른데 즉 浮脈이나 沈脈은 經脈 운동의 脈象이고 빠르다 느리다는 것은 氣의 운동 즉 脈動을 말함이다.¹¹⁹⁾

108) 許浚著, 對譯東醫寶鑑, p597

10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93

11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93

11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291

11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291

11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p93

114) 許浚著, 對譯東醫寶鑑, 切脉而知之者診其寸口視其虛實以知其病在何藏府也 p879

11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p4

116) 尹吉榮著,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p204

117)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p3

11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p4

11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262

이와 더불어 차은 脈의 분당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芝山圖表를 만들었는데 그 구성은 臟腑의 相通과 十二地支의 三合, 方合 원리와 六經의 開闔樞 이론을 바탕으로 圖表의 좌측에는 臟을 上下階位에 配列하고 우측에는 臟에 상통되는 腑를 배열하여 만들었다.¹²⁰⁾ 芝山圖表를 통하여 형상에서는 膽膀胱病症, 精氣神血의 상태, 臟腑와 十二經脈의 病所, 投藥後 病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¹²¹⁾

④ 症 (經絡病의 病理 및 症狀)

經絡系統은 經穴, 經脈, 經絡, 經筋, 經皮의 點, 面으로 그 범위가 넓고 皮, 肉, 脈, 筋의 上下로도 퍼져 있으며 그 사이로 氣血과 營衛가 運行되므로 이러한 經絡 구조는 형상적 관점에서 보면形色에 따라 개체의 특이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病理 및 病症을 파악해야 한다. 經絡의 病變은 대체로 넓게는 經絡이 분포하는 모든 부위에 나타나는데 머리, 耳目口鼻, 手足 등이며 특히 皮膚, 毛髮, 눈썹, 手足의 末端, 등 經絡의 異常 變動이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부위에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經絡은 氣血과 營衛가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氣血의 조건 즉 氣虛, 氣滯, 血虛, 血熱, 瘀血, 寒熱, 燥濕 등 六氣의 不調和에 의한 痰火, 風熱, 濕熱, 寒濕 등이 經絡流注를 따라 皮肉脈筋의 공간에 潤澤, 乾燥, 色, 脈의 변화, 肥瘦 등으로 病理가 형성된다. 주로 일어나는 증상으로는 皮膚에서 痛症, 瘙痒, 發疹, 隱疹, 검버섯 등 감각 장애나 色의 이상, 痺證, 麻木, 痛症 등 皮膚, 肌肉, 筋脈 부위의 증상 그리고 복합적으로 全身에 발생하는 癰疽, 癭瘤, 汗의 病

變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形象醫學的 치료는 經絡形象의 특이성을 염두에 두고 氣血과 營衛의 出入升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主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形象醫學的 治療의 臨床例

① 形象을 통한 形象理論의 鍼治療

• 診斷法

첫째; 六經形, 走鳥魚甲, 精氣神血 등 가장 뚜렷한 形象을 구분하여 정한다.

둘째; 芝山圖表에서 脈이 떨어진 臟腑와 해당되는 經絡을 찾는다.

셋째; 症狀의 寒熱 虛實 등을 구분한다.

• 刺鍼方法

基本方 ; 四關(五臟六腑의 十二原穴이 전부 四關에서 난다¹²²⁾. 百會, 印堂, 中脘, 關元(任, 督脈을 조정하여 얼굴, 가슴, 배의 上中下 중심축을 바로 잡는다.)

첫째; 정해진 形象의 經絡을 시술한다.(예를 들면 走類이면 足厥陰肝經의 木穴을 虛證이면 補하고 實證이면 瀉하며 이에 준하여 金穴을 補 혹은 瀉함. 補瀉는 迎隨補瀉)

둘째; 芝山圖表에서 脈이 떨어진 臟腑의 經絡을 시술한다.(예를 들어 足陽明胃經에 脈이 떨어졌으면 胃經을 선정한다.)

셋째; 맥이 떨어진 해당 經絡에 나타난 病症을 구분하여 穴性에 맞는 經穴을 迎隨補瀉 한다.(예를 들어 嘈雜 症狀으로 신물, 惡心, 胃痛이 있다면 脾胃의 津液 수분 停滯로 인한 痰飲으로 보고 足陽明胃經의 水穴을 瀉하고 土穴을 補한다. 만

120) 이용태,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이해, p186

12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p5

122) 許浚著, 對譯東醫寶鑑, p2075

五臟六腑, 六府有十二原 十二原出于四關

약 다른 복합증상이 나타나면 즉腰痛이나關節痛이 동반된다면關節痛의 原因에 따라 이를테면關節액 부족--腎, 靱帶 腱 등軟部組織 病變--肝膽, 血行障礙--心肺 등 다른 經絡의 施術도 가능하다.)

<치험례1>

주○○(여자 60세, 2004년 1월 6일 來院), 그림 1

【形】鳥類, 氣科, 눈발달, 말이 빠르고, 화사하며, 노래를 잘함.(프로급)

【色】특이한 점 없음

【脈】85 / 87

【證】

- ① 不安, 憂鬱, 焦燥, 胸痺感
- ② 胃腸不和(몽크리하다고 표현), 자주 便意를 느낌.

【既往歷】53세 때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현재까지 양약 복용 중, 젊어서부터 남편과의 심한 성격차이로 오랫동안 억눌려 지내음.

【治療 및 經過】

- ① 百會, 印堂, 人中, 中脘, 關元, 四關 基本方 (補瀉 없음)

② 勞宮 瀉, 曲澤 補

③ 少府 瀉, 少海 補

④ 內庭 瀉, 解谿 補, 1次로 10回 치료

3일 治療 후 上氣 증상 호전되면서 전반적으로 편안해졌으나, 답답한 느낌있음.

- ⑤ 1월 15일 본인 생일로 가족이 모여 어린 손자들 때문에 신경을 쓴 후 목이 갑갑한 느낌이 들어 心熱로 보고 少府(火穴) 瀉, 少海(水穴) 補 다음날 호전됨. 이처럼 기본방에 증상변화를 고려하여 9회 치료함.

【考察】정신이 불안, 초조, 갑갑한 증상은 心包經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고 말이 빠른 성격은 鳥類의 火의 발현상으로 보고 手少陰心經의 火穴

瀉, 水穴 補하고 手厥陰心包經의 火穴 瀉, 水穴 補를 하였고, 이와 수반되어 胃經의 痰飲症狀도 있으므로 內庭(水穴) 瀉, 解谿(土穴) 補를 하였다. 본인에 의하면 침맞기 전보다 마음이 편해지고 억제력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며 필자는 이 병은 변화가 많은 병이므로 증상이 심할 때마다 치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치험례2>

하○○(남자 46세, 2003년 1월 16일 來院), 그림 2

【形】走類, 臍體, 눈이 들어감

【色】검은편

【脈】100 / 98

【證】

- ① 좌측 어깨, 견갑부, 팔이 통증으로 팔을 올리고 내리지 못할 정도이며 누워도 통증이 심함.

- ② 시력이 나쁘고 안구 건조증이 있음.

【病歷】30대에 운동하다가 목을 다친 후 가끔씩 아프다가, 2002년 7월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MRI 검사 결과 경추 4-5사이 디스크로 판명되어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각종치료를 3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여러 한의원 치료도 別無反應하여 본원에 來院하였음.

【治療 및 經過】

- ① 基本方

② 肝經의 大敦 瀉, 中封 補

③ 膽經의 陽輔 瀉, 俠谿 補

④ 小腸經의 陽谷 瀉, 前谷 補를 하였다. 2개월 治療 후 통증 90%이상 소실됨. 그 후로도 간헐적으로 계속 치료하여 나머지 통증도 없어짐. 최근 무릎 타박으로 치료차 來院하여 물어보니 재발되지 않았음.

【考察】상기 환자는 走類이므로 筋肉이나 靱帶의 病變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脈이 臍에 떨어

졌고 膽主骨하므로 肝, 膽經의 火穴을 瀉, 水穴을 補하였다. 또한 목과 어깨의 經絡流注는 小腸經으로 小腸經의 火穴을 瀉, 水穴을 補하였다. 治療 도중에 음주와 스트레스로 大腸經과 心包經으로 脈이 떨어지기도 하여 이 經絡도 조절하였고 藥도 羌活勝濕湯 2劑를 投與.

< 治驗例3 >

박○○(남자 53세 2003년 8월 22일 來院) 그림3

【形】 走類, 膽體, 法領에 주름.

【色】 검은 편

【脈】 68 / 64

【證】 四肢無力하여 보행이 부자연함, 語滯, 좌측 입술주위 감각이상.

【病歷】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003년 7월 초순경부터 집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던 중 7월 21일 조식후 手足이 무력해지면서 주저 앓음. 그 후 입원하여 각종 검사 받은 결과 別無異常이라 하여 한방 치료차 來院.

【治療 및 經過】

- ① 基本方
- ② 肝經의 大敦 補, 中封 瀉
- ③ 腎經의 陰谷 補, 太谿 瀉.
- ④ 脾經의 陰陵泉 補, 太白 瀉. 治療는 기본방에 肝經, 脾經穴을 寒熱 虛實 등에 의한 變症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시술하였고,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脈과 症狀의 변화는 그에 따른 해당하는 經絡을 補瀉하였다. 患者가 처음 來院時 부인과 아들이 부축하여 왔으나, 7회 정도 治療 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였다. 그 후 2004년 1월 19일 현재까지 주 4회 정도 治療 중이며 현재 상태는 輕症의 步行不利와 입술주변의 감각장애가 남아 있다. 치료기간 중 腎氣湯 2劑도 併用하였으나 藥보다 鍼이 더 有效했던 것으로 생각

됨. 환자의 말에 의하면 2일 정도 침을 맞지 않으면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침을 맞으면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生氣가 든다고 하였다.

【考察】 走類는 五臟 중 肝과 肝經絡, 그리고 그 부속기관의 기능이 발달되고 민감하여 病變도 먼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法令의 주름과 당뇨는 脾胃의 陰血을 涸竭시키고 이러한 상태에서 신경을 쓴 결과로 나타난 類中風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肝經의 木穴 補, 金穴을 瀉하고 脾經과 腎經의 水穴을 補, 土穴을 瀉하였으며 治療 도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脈과 病症에 따라 부합되는 經絡을 補瀉하였다.

< 치험례4 >

이○○ (남자 57세 2003년 11월 5일 來院)

【形】 陽明形, 눈두덩과 입술이 두툼 배가 나옴.

【色】 누런 편

【脈】 98 / 100

【證】

① 양측 서혜부 및 골반부 쪼이는 느낌. 우손목 통증, 손발 저림.

② 眩暈症, 咽喉部, 痰盛, 勃起不全, 皮膚가 남의 살처럼 가렵다.

【病歷】 평소 고혈압이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으로 2003년 2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갑자기 쓰러져 119로 병원입원 검사결과 우측 뇌부분 腦梗塞으로 진단되어 1개월 입원함. 퇴원후 모 한의원에서 주2회 정도로 6개월간 치료 받다가 더 이상 진전되는 반응이 없어 來院함.

【治療 및 經過】

- ① 基本方
- ② 胃經의 足三里 補, 陷谷 瀉
- ③ 心經의 少海 補, 神門 瀉
- ④ 肝經의 曲泉 補, 太衝 瀉

來院時 위의 症狀 중 특히 서혜부와 골반의 조이는 것과 손목에 장기간 鍼刺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치료는 基本方에 胃經, 心經, 肝經의 寒熱, 虛實을 變症하여 選穴하였으며 治療 도중 脈과 症狀의 변화로 나타나는 病變은 그에 따른 經絡을 조절함. 6회 治療 후 전반적인 好戰反應이 나타났고 다시 6회 치료후에는 서혜부, 손목증상이 消失되었음. 이 무렵 眩暈症을 강하게 호소하여 十全大補湯加 天麻, 細辛하여 20첩을 투여하여 좋아짐. 그 후 일단 치료 중단됨. 2004년 1월 20일 전화로 확인한 바, 다른 증상은 없고 피부의 癢痒感만 있다고 하였다.

【考察】陽明形으로 胃經의 土穴 補, 木穴 瀉하고, 脈이 心으로 떨어졌고 증상중 皮膚癢痒과 저림증은 心血의 부족으로 經脈이 疏通되지 못하는 症狀으로 보고 心經의 水穴 補, 土穴 瀉하였으며 서혜부 주위의 經絡은 주로 肝經이 흐르므로 肝經의 水穴 補, 土穴 瀉를 하였다.

<치험례5>

김OO (여자38세 2003년 10월 27일 來院)

【形】氣科, 膀胱體, 입이 함축함.

【色】보통

【脈】脈象은 沈脈, 82 / 78

【證】

- ① 左肩臂痛-- 비오기 전 흐린 날씨에 더 함. 다친 어깨부위는 쿡쿡 쑤시고 팔까지 우러한 느낌.
- ② 소화 안됨-- 잘 滯하고 오후 5-6시경에 트림 자주 함.

【病歷】3개월전 교통사고로 머리와 어깨 다침. 7일간 입원하여 주사와 물리치료 받았으나 別無效果.

123) 東醫寶鑑 內傷門

治脾胃虛弱飲食不進未能消化心胸痞悶人參白朮白茯苓橘皮木香甘草各一錢右剉作一貼入薑三棗二水煎服<綱目>

【治療 및 經過】

① 基本方

② 心經의 少府 補, 少海 瀉.

③ 胃經의 解谿 補, 內庭 瀉.

④ 小腸經의 陽谷 補, 前谷 瀉. 藥은 <皮門>의 二陳湯 合 四物湯 加 桃仁, 紅花, 白芥子, 竹瀝, 薑汁. 처음 來院했을 때 阿是穴과 正經鍼으로 4회 치료하였으나 호전반응이 없어 상기 形象鍼을 시술하였는데 2회 치료후 통증이 거의 소실됨. 추가로 3회 치료 후 종료함.

【考察】氣科는 心肺의 기능이 鬱滯되기 쉬운 形象이며, 이 患者의 경우 瘀血이 팔의 血脈에 凝滯되어 經絡運行이 순조롭지 못하여 心經의 火穴 補, 水穴 瀉하였고 消化障礙도 脈象이 沈하여 胃氣虛로 보고 胃經의 火穴 補, 水穴 瀉하였고, 痛症이 小腸經絡에 속하므로 火穴 補, 水穴을 瀉를 하였다.

② 六經形에 의한 약물치료

<치험례1> 太陽形

정OO (남자18세 2003년 5월 20일 來院) 그림 4

【形】太陽形, 神科

【色】약간 붉은 형.

【脈】94 / 92

【證】밥맛이 없고, 後頭痛이 자주 생김.

【治療 및 經過】

- ① 錢氏異功散¹²³⁾ 20첩 투여. 약 복용후 입맛이 좋아졌고 頭痛의 회수가 줄어들면서 머리가 훨씬 맑다고 하여 그대로 20첩 투여.
- ② 2003년 9월 23일 일주일전 우유 먹고난 후 泄瀉

하면서 두드러기가 생겨 피부가 특히 야간에 가렵다고 하는데 두드러기는 어릴 때부터 감기 몸살이 생길 때마다 나타났다고 함. 九味羌活湯¹²⁴⁾ 20첩 투여후 확인 결과 皮膚症狀 없어졌음.

【考察】太陽形은 氣의 升發力이 强하고 少氣多血하므로 脾胃의 氣虛로 因한 消化障礙나, 腎膀胱의 虛冷症이 생기기 쉽다. 또한 皮膚에서는 少氣하므로 腠理가 느슨하여 毛孔이 잘 닫히지 않아 皮膚病變이 急性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치험례2〉 少陽形

김○○(여자71세 2003년 6월 4일 來院) 그림5

【形】少陽形 臍體 측면발달

【色】검은편

【脈】67 / 64

【症】

- ① 全身關節痛이 있는데 특히 허리와 무릎이 심함.
- ② 감기에 걸리면 熱이 오르고 땀이 나고 咳嗽가 오래 감.
- ③ 평소 입이 쓰고 無味.

【治療 및 經過】

- ① 固眞飲子¹²⁵⁾ 20첩 投與.

② 2003년 6월 20일 來院시 입맛이 돌아 식사량이 늘었고 어깨와 허리는 약간 부드러워진 듯하나 무릎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함. 살이 찌면 무릎이 더 아프지 않을까 걱정함.

【考察】이 患者는 나이로 보면 虛勞症에 속한다. 少陽形의 病理는 寒熱往來가 있고 입이 쓰며 膽主骨하므로 關節의 病變도 흔히 잘 나타난다. 이 患者의 경우 膽汁分泌가 줄면서 입이 쓰고 無味하며 關節에서는 津液이 不足되어 虛勞症과 함께 上記 症狀이 發生한 것으로 본다.

〈치험례3〉 陽明形

송○○(여자42세 2003년 3월 24일 來院) 그림6

【形】陽明形, 精科, 입위주

【色】입주위 누런색

【脈】86 / 83

【證】

- ① 3년전부터 바닥없는 구름위를 건듯이 어지럽고,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나 고개를 돌릴 때 심하다 함.
- ② 속이 상할 때 胃가 쓰리고 惡心症이 있음.
- ③ 手足冷症이 있음.

【治療 및 經過】養血祛風湯¹²⁶⁾ 20첩 투여후,

124) 東醫寶鑑 寒門

不問四時但有頭痛骨節痛發熱惡寒無汗脉浮緊宜用此以代麻黃爲穩當<節奄>○有汗不得服麻黃無汗不得服桂枝若誤服則其變不可勝言故立此法使不犯三陽禁忌乃解表神方羌活防風各一錢半蒼朮川芎白芷黃芩生地黃各一錢二分細辛 甘草 各五分右剉作一貼入生薑三片大棗二枚葱白二莖水煎服<入門>○一名羌活冲和湯<醫鑑>○羌活治太陽肢節痛乃撥亂反正之主也防風治一身盡痛聽軍將命令而行蒼朮雄壯上行之氣能除濕氣下安太陰甘草緩裏急和諸藥川芎治厥陰頭痛在腦生地黃治少陰心熱在內黃芩治太陰肺熱在胸白芷治陽明頭痛在額細辛治少陰腎經苦頭痛<正傳>

125) 東醫寶鑑 虛勞門

治陰陽兩虛氣血不足飲食少思五心煩熱潮熱自汗精氣滑脫行步無力時或泄瀉脉度沈弱咳嗽痰多將成勞瘵熟地黃一錢半人參山藥當歸黃芪蜜炒黃栢鹽酒炒各一錢陳皮白茯苓各八分杜冲炒甘草灸各七分白朮澤瀉山茱萸破故紙炒各五分五味子十粒右剉作一貼水煎服蓋門冬地黃雖滋陰久則滯胃滯經致生癰疽金石桂附雖助陽久則積溫成熱耗損眞陰惟此方備五味合氣冲和養血理脾胃充腠理補五藏無寒熱偏併過不及之失中年已上之人可以常服<入門>

126) 東醫寶鑑 頭門

治婦人頭風十居其半每發必掉眩如立舟車之上蓋因肝虛風襲故也當歸川芎生乾地黃防風荆芥羌活細辛藁本石膏蔓荊子半夏旋覆花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水煎服

2003년 4월 18일 再診時 眩暈症狀이 9할 정도가 좋아졌으나 고개를 돌릴 때는 아직 症狀이 나타나며 속쓰림증은 그대로라고 함. 嘈雜으로 보고 化痰清化湯¹²⁷⁾ 20첩 투여.

【考察】陽明形은 胃熱이 盛하여 무엇이든 잘 먹고 過食하기 쉬우므로 內傷疾患이 頻發한다. 그리고 胃의 濕이 鬱하여 濕熱이 형성되면 土侮木하여 風熱이 動하기 쉬우므로 頭風, 皮膚病, 關節疾患 등도 發病하기 쉬운 체질이다. 상기 患者는 頭風과 嘈雜으로 보았고 위의 處方들은 陽明形의 頭風과 嘈雜을 치료하는 대표적 處方이다.

〈치침례4〉 太陰形

박○○ (여자 43세, 2000년 3월 28일 來院) 그림7

【形】太陰形 입발달

【色】보통

【脈】86 / 83

【症】

- ① 惡心, 嘔逆, 트림, 無味, 便秘症이 있고, 평소 胃酸이 많이 올라옴.
- ② 7년간 頭痛과 眼痛이 있었고, 3월 17-18일에는 평소 없던 어지러움증이 생기면서 惡心, 嘔逆이 심했음.
- ③ 평소에 허리와 기타 관절이 부드럽지 못하고 生理도 不順한데 2월에는 生理가 없었음.

【治療 및 經過】

① 天麻半夏湯¹²⁸⁾ 20첩 투여, 2000년 4월 24일 재진시 머리부위의 症狀은 호전되었으나 아직 덜 풀린 느낌이고 胃腸症狀은 큰 변화가 없고 生理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고 나면 全身이 아프다고 하였다. 胃腸症狀 改善을 목표로 八味理中丸 30일분 投與.

② 2000년 6월 8일 來院時, 胃腸症狀과 머리의 증상이 거의 消失되었다고하며, 5월말에 일주일간 검은 生理가 많이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목과 어깨의 관절이 불편하다 함. 다시 八味理中丸¹²⁹⁾ 30일분 投與.

【考察】太陰形은 脾의 運化作用이 低下되면 濕이 鬱滯되기 쉽다. 濕이 熱과 融合되면 濕熱이 조성되어 全身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頭痛, 皮膚病變, 嘈雜, 便秘 등이 이에 해당되고 寒과 結合하여 寒濕이 생기면 腹痛, 泄瀉, 關節不利 등의 症狀이 일어날 수 있다. 天麻半夏湯은 頭痛 眩暈이 눈의 이상과 같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處方이고, 八味理中丸은 脾胃를 따뜻하게 하여 運化作用을 돕는 太陰形의 主藥이다.

〈치침례5〉 少陰形

김○○ (여자19세 2003년 12월 24일 來院) 그림8

【形】少陰形, 走類, 입발달

【色】보통

【脈】94 / 82

【症】

127) 東醫寶鑑 內傷門

治嘈雜南星半夏陳皮蒼朮白朮白芍藥黃連黃芩梔子知母石膏各七分甘草三分右剉作一貼薑三水煎服<醫鑑>

128) 甘草東醫寶鑑 頭門

治風痰眩暈欲吐天麻半夏製各一錢橘皮柴胡各七分黃芩酒炒白茯苓前胡甘草灸各五分黃連三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水煎服<綱目>

129) 甘草東醫寶鑑 內傷門

治脾胃虛冷飲食不消或腹脹嘔泄白朮二兩甘草一兩半人參乾薑縮砂白茯苓神麴麥芽各一兩製法服法同上<丹心>

- ① 수일전부터 어지러움.
- ② 한달가량 잠이 깊이 안오고 불안감, 心悸症이 생김.
- ③ 手掌汗

【治療 및 經過】 養心湯¹³⁰⁾ 20첩 투여.

2004년 1월 15일 再診時 主訴症이 거의 없어졌으나 手掌汗이 남아 있어서 心臟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대로 20첩 投與함.

【考察】 上記 患者는 얼굴이 길고 퍼져(散) 보이는 男子象의 少陰形으로 볼 수 있다. 여자가 이런 形象을 지니면 心氣가 鬱滯되기 쉽다. 그러므로 心熱로 因하여 겨울인데도 手掌汗이 나타나고 上記 증상도 생긴 것이다

〈치험례6〉 厥陰形

박○○(여자48세 2003년 12월 17일 來院) 그림 9

【形】 厥陰形, 측면으로 보면 눈, 코사이가 꺾임.

【色】 보통

【脈】 66 / 64

【症】

- ① 손발이 차고 매시간 마다 小便을 봄.
- ② 消化 안되고 간혹 트림.
- ③ 2년 전부터 生理가 늦어지고 지금까지 受胎를 못함.
- ④ 左膝部가 아프면서 부은 느낌이고 병원에서 甲狀腺 機能低下라고 함.

【治療 및 經過】 <小便門> 五苓散 合 四物湯 加 山茱萸, 五味子¹³¹⁾ 20첩 投與한 후, 2004년 01월 5일 來院시 小便이 2시간에 한번 정도로 줄고

消化機能도 좋아진 듯한데 다른 증세는 아직 모르겠다고 함. 小便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上記 處方 20첩을 그대로 投與.

【考察】 厥陰形은 少氣多血하고 陷沒形인데 少氣하면 여자의 경우 손발이 매우 차고 下服이冷하여 生理痛, 週期 遲延, 不妊, 疝症 등 泌尿生殖器 계통의 寒冷症이 많이 생긴다. 이 患者의 경우는 小便頻數이 매우 심하므로 이 症狀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 地積象의 경우라면 五積散이 적절하다.

Ⅲ. 總括 및 考察

먼저 본론에서 서술된 일반 經絡論에 대하여 總括하여 보면 經絡은 氣血이 흐르는 도로이며 氣(經氣)血은 經絡運行的 主體이다. 經絡의 構成은 十二經脈, 十二經別, 奇經八脈의 經脈과 十五絡脈, 絡脈, 孫絡, 血絡, 浮絡의 絡脈으로 이루어졌고 十二經脈의 流注에 따라 十二經筋, 十二皮膚가 분포되어 經絡이 人體를 點, 線, 面의 全身 體表와 皮肉脈筋의 上下 空間을 아우르는 全身 그물망을 형성하여 人體의 모든 부분이 統一된 有機體로서 生命現象을 발휘하게 한다.

經絡運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氣血의 상태, 晝夜의 營衛, 四時運行的 六氣를 포괄하는 三陰 三陽, 臟腑의 生理, 病理的 條件이다. 氣는 (血은 氣를 따라감) 人體에 영향을 미치는 內的條件과 外的條件의 모든 변화에 適應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反應하고 이를 經絡의 흐름을 통하여 形色脈證으로 드러낸다. 晝夜의 營衛에 의한 經絡運행은 營氣, 衛氣, 宗氣, 原氣인데 그 중 營氣는 血

130) 東醫寶鑑 神門

治憂愁思慮傷心或勤政勞心以致心神不足驚悸少睡白茯苓茯神當歸生地黃各一錢黃芪蜜灸遠志薑汁炒各八分川芎栝子仁酸棗仁炒各七分半夏麩六分人參五分甘草灸辣桂各三分五味子十四箇右剉作一貼薑三片水煎服<醫鑑> ○停水怔忡加檳榔赤茯苓

131) 東醫寶鑑 小便門

氣로 經脈을 통하여 血液을 全身조직에 供給하여 榮養을 담당하고 宗氣는 營衛氣가 全身을 營衛하는데 필요한 추동에너지이며 原氣는 腎間動氣로 營衛氣가 運行하는 十二經脈의 원천인 뿌리가 된다. 衛氣는 經脈과 그 주변부에 광범위하게 확산 滲透되어 있으며 낮에는 身體와 四肢의 陽부위에만 運行하고 밤에는 五臟六腑 內로만 運行함으로써 睡眠과 活動이라는 人體의 自轉 현상을 주도한다. 經絡과 四時運行的 關係에서 四時的 氣候變化인 六氣는 三陰三陽의 陰陽 消長운동인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으로 表現되며 이들의 月別配屬, 開闔樞, 人體에 대한 影響에 따라 經絡의 機能과 變化가 相異하게 드러난다. 飲食, 呼吸, 七情, 性 등의 조건은 장부의 活動에 生理, 病理적으로 많은 影響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經絡을 통하여 形色脈證으로 體表에 나타난다.

經絡의 病變은 氣血, 三陰三陽, 臟腑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均衡을 이루지 못하여 經絡의 出入升降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痛, 痺, 瘀滯, 逆順, 逆亂 등의 病變으로 나타난다.

한편, 形象醫學에서 經絡論에 대하여 芝山이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芝山은 經絡의 生理, 病理를 自然의 현상과 생활의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실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의 地坪을 넓혀 주었다. 芝山の 經絡에 대한 서술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形色脈證의 관점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絡과 形은 즉 經絡의 生理 및 病理의 現象이 形象으로 포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하여 「靈樞經脈」에서 “人經不同 絡脈異所別也”라 하여 사람마다 經脈이 같지 아니하여 絡脈도 갈라지는 바가 다르다고 하여 經絡의 개체적 특이성을 언급하였고, 芝山도 사람의 形色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經絡도 그 발달 상태

나 升降, 出入, 浮沈의 운동성과 氣血多少의 偏差로 因하여 각각 다른 經絡의 形象이 形成되어 그 形象이 눈코의 升降浮沈의 氣勢로 드러난다고 하는 六經形을 창안하였다. 六經形의 내용 중에는 각 形의 氣血多少, 發病徑路, 六經形과 關聯된 臟腑의 病變, 性情 등이 내포되어 있다.

둘째, 經絡과 色의 關係를 보면 五色은 氣의 榮華요 神의 깃발이라 하여 精氣神血의 變化상태가 色으로 드러나며 色이 經絡을 통하여 外部로 發顯되는 과정은 「靈樞經脈」에 “脈之見者 皆絡脈也”라 하였으니 즉 絡脈의 分枝인 孫絡, 浮絡, 血絡을 통하여 나타난다. 色은 크게 五臟色, 四時色, 病色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五臟色은 心赤, 肝靑, 脾黃, 肺白, 腎黑이고 四時色은 四時的 氣候變化에 따라 人體가 적응할 때 나타나는 色으로 여름에는 붉게 얼굴색이 변하고 겨울에는 검게 변하는 등이다. 病色은 疾病의 상태를 반영하는 色으로 病的 進行이 急性, 혹은 慢性的으로 病이 進行되거나 不治症이나 死證일 때 현저히 나타난다. 芝山은 여건에 따라 변화할 때 변해가는 것이 色이라 하였고 經絡은 色인데 十二經脈의 根인 脈의 律動에 의하여 色이 나타나고 感情의 변화도 중요한 色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經絡과 脈의 關係에서 芝山은 脈이 있기에 그 形이 있다고 하여 男女老少, 肥瘦, 長短의 脈象이 形象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창안한 芝山圖表에는 脈에 대한 思想이 농축되어 있다. 그 내용은 臟腑相通論, 十二地支의 三合, 方合原理, 三陰三陽의 開闔樞 理論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臨床에서는 膽膀胱구분, 臟腑病의 病所, 經絡病의 구분, 病的 预后판정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넷째, 經絡의 病變은 經絡이 분포하는 全身의 모든 部位에 發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經絡의 이상변동이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되는 皮膚,

毛髮, 눈썹, 手足의 末端部位에 形色의 變化로 많이 나타난다. 經絡病의 原因은 氣血의 조건 즉 氣虛, 氣滯, 血虛, 血熱, 瘀血 등과 內外 六氣의 不調和로 因한 痰火, 風熱, 濕熱, 寒濕 등이 經絡流注를 따라 皮肉脈筋의 공간에 潤澤, 乾燥, 色, 脈의 變化를 일으키고 이에 관련된 症狀은 皮膚에서의 痛症, 瘙癢, 發疹 등 感覺障礙나, 色의 異常痛症, 麻木, 痺證 등 皮肉脈筋 부위의 증상, 全身的으로 癰疽, 汗의 病變, 癭瘤 등의 症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臨床例를 통하여 소개한 形象鍼은 走鳥魚甲, 精氣神血의 科類와 芝山圖表의 脈法, 症狀의 變症을 形象的 이론에 合一시켜 臨床에 적용해 본 결과 기대이상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보완된 연구를 기대한다.

IV. 結 論

「內經」을 비롯한 여러 醫書와 形象醫學의 관점으로 經絡論 및 經絡病에 대하여 考察하고 形色脈證의 측면에서 鍼과 藥物을 臨床에서 활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外形, 臟腑를 內屬外絡하는 經絡의 구조는 十二經脈, 十二經別, 奇經八脈의 經脈과 經穴, 絡脈, 血絡, 浮絡, 孫絡의 絡脈으로 이루어지고 十二經脈의 流注를 따라 十二經筋, 十二皮膚가 분포되어 全身의 體表面과 皮肉脈筋의 上下 공간까지 입체적인 그물망을 형성하여 통일된 有機體로써 生命現象을 발휘하게 한다.
2. 經絡의 運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四時의 六氣 偏差에 의한 三陰三陽, 臟腑의 生理 및 病理的 변화, 晝夜의 營衛 과정에서 나타나는 經氣의 상태이며 이와 같은 요인은 經絡內 氣血의 升降出入 運動을 주관한다.

3. 經絡의 病變은 外로는 風寒暑濕燥火 六氣의 不調和, 內로는 飲食, 居處, 七情, 性의 불균형 등 發病因子가 經絡을 통하여 內外로 出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때 經絡上에는 出入升降의 變調가 초래되고 나타나는 증상은 痛, 痺, 麻木, 瘀, 滯, 腫, 經絡의 逆順, 逆亂 등이다.

4. 芝山의 經絡論과 經絡病을 形色脈證의 관점에서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芝山은 經絡의 生理, 病理 現象을 自然과 生活에서 일어나는 現象들을 經絡과 比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經絡의 形象은 經絡의 氣血多少와 經絡의 氣勢로 형성된 六經形으로 보는데, 그 내용에는 각 形의 氣血多少, 發病徑路, 六經形에 의한 臟腑病變과 性情 등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 經絡과 연관된 色에 대하여 보면 色은 여건에 따라 變하는 것이고 經絡은 色으로 본다. 色은 氣의 榮華요 神의 깃발이니 精氣神血의 양상과 五臟本色, 四時色, 病色, 感情의 變化가 經脈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나타난다.

넷째, 經絡病을 診斷하는 形象醫學에서의 脈法은 芝山圖表를 활용한다. 芝山圖表는 臟腑相通, 十二地支의 三合과 方合 原理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經脈과 연관된 芝山圖表 내용은 臟腑, 經脈의 表裏關係는 手-手, 足-足이며 共變關係는 手-足, 足-수로 되어있다. 臨床에서 芝山圖表는 膽膀胱구분, 臟腑病의 病所, 經絡病 구분, 病의 豫候判斷 등에 널리 활용된다.

다섯째, 經絡病은 經絡이 분포하는 모든 부위에 나타나지만 특히 皮膚, 毛髮, 눈썹, 手足의 末端 등 經絡 반응이 敏感하고 신속한 부위에 多發한다. 原因은 氣血의 조건인 氣虛, 氣滯, 血虛, 血熱, 瘀血 등과 六氣의 不調和로 因한 痰火, 風熱, 濕熱, 寒濕, 燥熱 등이며 症狀은 皮膚에서 痛症,

瘙痒, 發疹 등 색깔이나 감각의 病變이며 皮肉筋骨에는 痛症, 痺證, 麻木 등이며 全身으로는 癰疽, 汗의 疾患, 癭瘤 등이다.

여섯째, 形象의 科類, 芝山圖表의 脈, 症狀의 辨證을 이용하여 臨床에 적용한 形象鍼은 매우 有效하였으며 향후 더욱 체계적인 研究를 요망한다.

參考文獻

1. 金定濟 監修. 最新鍼灸學. 서울 : 成輔社. 1981.
2. 大韓傳統韓醫學會 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 VII. 서울 : 芝山出版社. 1997-1999.
3. 大韓形象醫學會 編. 芝山形象醫案. 서울 : 지산출판사. 2003.
4.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서울 : 法仁文化社. 1999.
5. 朴贊國 編譯. 病因病機學. 서울 : 傳統醫學研究所. 1992.
6. 宋點植 撰. 醫學輯要. 서울 : 大耕出版社. 1991.
7.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서울 : 成輔社. 1983.
8. 李經雨 編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 麗江出版社. 2001.
9. 朴晶鉉, 양성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및 치료. 大韓形象醫學會誌. 2001 ; 2(1).
10. 白根基. 芝山先生이 주창한 膽 膀胱 용어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 17(2).
11. 이용태.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 17(3).
12. 鄭幸奎.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한 氣에 관한 연구. 대한형상의학회지. 2001 ; 7(1).